



사회사업 활동, 사회사업가

G. 레 케 보

〈노르웨이인, 사회사업가〉

오늘 여러분 앞에 앉아 있으니, 1958년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별 사회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에 직원을 모집하고 직원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때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일을 많이 하라”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을 하라” 직원들이 더 이상 하지말고 좀 쉬자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류의 사회사업가가 되려고 일을 중단하느냐고 꾸중했었습니다. 여하튼 전진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사업은 무엇인가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20 세기의 전문적인 직업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사업은 남을 좋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좋게 해 주는 그 기분 자체가 바탕이 되어 사회사업의 철학을 굳히는 것도 아니며 이론적인 것이나 또는 기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사업이란 무엇입니까? 나이를 점점 먹어 가니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준 것은 인간이 숨을 쉬는 바로 그 순간 부터였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 자기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고귀한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사업가의 기본적인 행동철학입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

이 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나눔”지(제 44 호, 1985. 4. 27)에 게재된 글로서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레 케보씨의 강연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이와 더불어 다른 이웃을 위해 일하며 그들에게 좋은 변화를, 그 대상자가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또 그들을 위한 행정을 다루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데, 따뜻한 마음(heart)과 교육, 즉 지식(knowledge) -이 두가지가 구비되어 균형을 이루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자질

그런데 사회사업가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되고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해야 합니다.

변해서 안되는 것은 하느님이 준 따뜻한 마음입니다. 만약 그것에 변화가 있다면 사회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진 거라고 보십시오. 사회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고, 무자비하고 남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사회사업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비단사회사업가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가나 사업가 등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금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항상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즉, 시대의 발전과 기류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행동과 전문적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어찌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사업가들은 서구에 있는 그들보다 그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대 조류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론을 터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가는 오히려 사회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1959년 4월 4일, 국립의료원에 사회사업가가 파견되어 일을 했는데 그당시 국립의료원에서는 의료사회사업가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사회사업가 없이 잘 지냈고 환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는 일종의 사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사업이 그 시대의 조류보다 좀 앞섰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목포에 갔다가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들에서 농사짓는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300여년 전의 현장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난 후에는 정반대의 장면을 보았는데 완전히 기계화된 농경지였습니다. 이와같이 옛날과 현대가 접해진 상황에서 사회사업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사회사업가는 300여년전의 입장과 현재의 입장에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어려운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필요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16~7세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수업시간이 7시간은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사회사업가이고 모든 근로자들의 많은 노동량과 시간에 대해 즉 택시 운전수의 12시간 과업, 또 명동점포 여점원들의 밤 10시까지의 노동시간에 대해 소리를 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사회사업가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손에 손을 잡고

어느 사회를 가든지간에 긴급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사회사업가는 긴박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소외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나 때로 사회사업가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된 17세 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굶고 배고프고 굶기야는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만성이 되어 자칫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사회사업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 사회사업 활동은 인간에게 변화를 주는 역할이므로 일대일로 인간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해 사회적인 변

화를 줄 수도 있겠고 행정을 하면서도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손에 손을 잡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사업가의 행동틀

끝으로 사회사업가가 형성하여야 할 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획을 세웁니다. 둘째, 사업에 대해 항상 평가합니다. 셋째, 평가된 바를 교육적 효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잘못을 하였을 때는 즉각 시정하고 배우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동차나 기계도 고장을 일으키는데 다른 이를 돌보는 일에서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나는 잘못 자체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을 통해 배워나가는 데에 대해 관찰합니다.

네째, 사회사업은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것입니다. 사회사업가는 자기 일 이외에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세계 동향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것은 아프리카의 굶주림입니다. 금년에 비가 충분히 내리 양곡수확이 풍작이어도 충분치 못합니다. 앞으로 1~2년동안은 아프리카의 기아자가 하루에 4만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낭비되는 선진국의 식량을 그들에게 보내면 굶주림이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평강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시간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바랍니다. 하여튼 나눌 수 있는 물질로, 정신적으로, 기도로 그들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사업은 하느님이 주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인간이 존속하는 한 지속될 불변의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사업의 길을 택하면 영원한 전문직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사업 분야의 여러형태 중 자기가 맡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서 책임있는 사회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연사(演士)는 놀웨이 태생으로 20대에는 몽고지방에서 사회사업에 종사했고 2차 대전중에는 모국에 체재하면서 의료사회사업가로 일했으며 6.25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는 주한 놀웨이 야전병원 요원으로 근무하고 귀국하여 참전용사들과 N-N-A(Norwegian Korean Association)을 조직하고 한국의 결핵퇴치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파한되었는데 그가 한국에서 벌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한노아동결핵병원 설립(서울 마포구 용강동 70)
2. 목포아동결핵병원과 결핵관리소 설립(목포시 대성동 70)

3. 의료사회사업가의 배치

- (1)국립의료원
- (2)시립남부병원
- (3)시립중부병원
- (4)한노아동결핵병원
- (5)목포아동결핵병원
- (6)이천도립병원

4. 사회복지관사업의 창설

- (1)마포사회복지관
- (2)목포사회복지관
- (3)인천사회복지관
- (4)이천사회복지관

5. 이밖에도 고아원과 지체장애아동들의 지원을 한 사회사업가를 배치하여 장학 지도와 연장고아들의 직업 지도와 취업알선에 있어서도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6. 이와같은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레케보씨는 1963년 보건의 날에 정부로부터 공익포장을 수상하였다.

7. 개인적으로도 전쟁고아 형제를 양자로 삼아 장성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을 맡아왔다. 자신은 루터교신자이면서도 어린 양자들의 종교(천주교)를 끝까지 지키게 해 준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